

# 중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문헌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⑥ - 중국

이관승 (미국 코넬대학교 박사과정(정책학))  
정선욱 (미국 코넬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 ■ 머리말 - 중국 내 CSR의 대두

1953년 미국 경영학계에서 Bowen이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을 거론한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영학계에서는 CSR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CSR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및 기업의 사회적 대응(corporate social responsiveness)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 학자들은 CSR을 이해관계 당사자와 연관짓기도 하며, 일부는 지속가능성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21세기 들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된 기업 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이라는 개념과 CSR은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sup>

이렇듯 CSR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창이지만 기존 논의는 주로 미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형성된 것이며, 1980, 90년대부터 미국과 경제 수준 및 문화면에서 유사한 유럽으로 CSR 논의가 확대되었다. 아시아에서는 CSR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근래 몇 년간 중국에서도 CSR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논의가 급속하게 유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만든 부정적 측면들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멜라민 분유 사태,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sup>2)</sup>

1) CSR의 역사 및 정의에 대한 논의는 Carroll, Archie B.(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Society* 38; 이장원 · 이민동 · 강영희(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2) 정선욱(2011), 『중국 폭스콘 고용관행 보고서 분석: 노동법 준수, 인간적 대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2월호 참조.

노동자 파업 등을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각종 사회 문제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과 무관치 않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고 중국인들은 CSR을 원용하여 기업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도 CSR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CSR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 현재 중국 학계 및 재계에서 CSR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sup>3)</sup>

중국의 현 상황을 볼 때, 중국의 CSR 관련 논문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 내 CSR 활성화는 중국에 현지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중국의 CSR 논의 과정 및 발전 방향은 인접국인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이 CSR을 수용하기까지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중국의 CSR에 대한 학계의 논의 동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중국의 CSR 관련 논문들을 평가하고 향후 논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 중국의 CSR 수용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

### 역사적 배경<sup>4)</sup>

개혁개방(1979) 이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기에, 국가와 기업은 구분되지 않았다. 기업은 모두 국영기업이었으며, 기업은 사회의 복지 제공 역할을 부담해 왔다[企业办社

3) Wong, Loong(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Between the market and the search for a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Asian Business and Management* 8(2); Lin, Li-Wen(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1) 참조.

4) 중국의 CSR 도입의 시대구분에 관해서는 Wang, Lei and Heikki Juslin(2009), "The impact of Chinese cul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harmon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Ip, Po Keung(2009), "The challenge of developing a business ethic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참조.

순].<sup>5)</sup>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기업들은 덩샤오핑의 선부론에 호응하여 이윤극대화에 매진 하기에 이르렀다. 국영기업들은 점차 사유화되기 시작하였고, 사기업도 새로 출현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이전에 국영기업이 부담하였던 사회적 역할을 사실상 면제받고, 국부 증대라는 명목으로 이윤 창출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정부 역시 국영기업이 이전에 담당하던 사회 보장 기능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개혁개방 이후 국가의 전체적인 부는 급증하였으나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의 사회 문제도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급증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문제들은 1990년대 들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각종 사회 문제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여 빈부·도농격차, 부정부패, 환경오염 등의 현안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CSR은 사회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중국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도입된 초기, 대부분의 중국 기업인들은 CSR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째, 아직 자신들은 그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둘째, 서구가 고안한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편하하거나, 셋째, 오랜 전통과 문화를 지녔으며 한창 개발 단계인 중국은 서구 선진국의 관행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출하였다.<sup>6)</sup>

결국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국공산당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비록 덩샤오핑이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이후,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발전에 따른 폐해도 상당하다는 반성과 함께 2003년에 출범한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以人爲本]’, ‘조화로운사회[和諧社會]’ 등 기존의 성장일변도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sup>7)</sup> 2003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6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창된 과학발전관에 이어, 2005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사회주의

5) Lin, Li-Wen, 앞의 논문, p.86.

6) Lin, Li-Wen(200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ndards in the global supply chain: Resistance, reconsideration, and resolution in China,”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5(2), Fall 2007, pp. 330~340 참조.

7) 이남주(2005), 『중국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의에 대한 분석』, 『정세와 정책』, 2005년11월호, p.1.

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능력 향상'을 당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발표하였는데, 조화로운 사회는 과학발전관의 최종단계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중국인들이 CSR을 적극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에 발생한 마텔(Mattel)의 인형 리콜 및 펠라민 분유 사태로 중국인들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게 되었고, 쓰촨 대지진 당시 왕라오지(王老吉) 같은 일부 중국기업이 출연한 과격적인 성금액과 코카콜라 같은 다국적기업의 미약한 성금액의 현격한 차이를 보면서, 기업이 중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게 된 것이다.<sup>8)</sup>

일련의 사건들로 조성된 사회문제 의식 및 새로운 국가 발전관은 중국 기업인들 스스로 CSR을 수용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중국 내에서 CSR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다. 특히, '조화사회'는 기업의 CSR을 내재적으로 요구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중국인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CSR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의 중국 기업인들은 이윤 창출도 CSR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sup>9)</sup> 또한, China Enterprise Survey System의 설문 조사는 70% 이상의 조사 대상자가 자사의 이미지 제고가 CSR의 주된 동기라고 대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아직 중국의 CSR의 관행은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다.<sup>10)</sup>

8) Darigan, Kristian H. and James E. Post(2009), "Corporate citizenship in Chin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35, Autumn 2009, p.48; Lin, Li-Wen(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1), p.86.

9) *ChinaCSR*, May 2007, p.4; Kolk, Ans, Pan Hong, and Willemijin van Dolen(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tailers' sustainability dimension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9에서 재인용.

10) Moon, Jeremy and Xi Shen(2010), "CSR in China research: Saliency, focus and na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 p.622.

## ■ 중국의 CSR에 관한 연구 동향<sup>11)</sup>

중국의 CSR 관련 논문들은 크게 중국계 학자들이 자국의 CSR 발전 방향에 대한 논지를 제시하는 논문과 서구의 경영학자들이 중국의 CSR을 평가하는 논문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학자들은 자국의 CSR을 논할 때 역사 및 문화적으로 서구와 구분되는 독자적 전통을 보유한 자국의 중국적 특색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여 CSR의 맥락적 접근을 중시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sup>12)</sup> 이에 반해, 서구 학자들은 경영윤리 측면에서 유가 사상을 긍정적으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으나, CSR 분야에서 자신들이 수립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중국의 CSR을 접근하되 부수적으로 중국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는 점에서 중국계 학자들과 차이가 있다. 중국의 CSR은 서구 학자들에게 아직까지 덜 친숙한 주제인 동시에 언어적 장벽, 중국의 전통 및 문화 강조, 서구와는 다른 강력한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사회구조상 차이로 인하여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sup>13)</sup>

### 중국계 학자들의 논문 동향

중국계 학자들은 중국은 자신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유구한 나라로서 서구의 CSR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들의 논문 제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sup>14)</sup> 역사와 문화 및 경제발전 수준이 서구와 상이한 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의 주장은 원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들은 특히 유교를 자국의 고유한 CSR의 근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Wang(2009)은 유교에서 개인의 목표가 ‘superior man’이듯이 중국기업들은

11) 중국 CSR을 다루는 모든 논문을 섭렵하지 못한 관계로, 이 글과는 다르게 동향을 판단할 수도 있다.

12) 중국계 학자들의 중국적 특색 강조는 단지 CSR 논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적극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중화주의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nyan: Nothing new under heaven,” *The Economist*, Jun. 18, 2011)은 중국계 학자들이 중국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면서 국제관계론 분야의 동향을 소개했다.

13) Moon and Shen, 앞의 논문 참조.

14) Wang, Lei, 앞의 논문; Xu, Shangkun and Rudai Yang(2010),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 paradigm,”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superior enterprise’가 되어야 한다고 중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서구의 CSR 개념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중국에서 CSR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중국은 레닌주의, 마오이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CSR은 서구의 CSR과 다르다는 것이다.<sup>15)</sup> 즉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는 시장사회주의로서 일차적으로 민간의 자유에 시장을 맡기는 서구의 시장자본주의와는 CSR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중국계 학자들은 주장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국정부는 조화사회 및 과학발전관을 제시한 이후, CSR을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CSR 장려의 결과, 중국의 CSR의 주요 성과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법적, 제도적 개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6년 개정된 회사법 제5조는 중국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고, 국가전력망공사[国家电网公司]는 국영기업 최초로 CSR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는 국영기업을 위한 CSR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고, 상하이와 선전의 증권거래소는 CSR에 대한 안내서를 작성 및 배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계 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CSR의 발전 토대인 ‘조화사회’라는 이념 동참을 위하여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중국의 CSR 발전의 주요 성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성과로 거론되는 법률 및 제도 개정도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기업에 구체적인 CSR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CSR 성과를 들여다보면, 정작 중국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편이다.

그뿐만 아니라, CSR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제·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법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인데, 중국의 법 집행이 자의적이고 비효율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법의 경우에 중국은 유럽국가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정부가 중국의 CSR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할 경우, 중국정부의 법 집행

15) Wong, Loong, 앞의 논문, pp.135~137; Lin(2007), Lin(2010), Moon and Shen, 위의 논문 참조.

16) Anderlini, J. and G. Dyer(2007), “Wary welcome for China's labour reform,” *Financial Times*, 2007, July 2.

능력 향상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중국 CSR 관련 서구 학자의 논문 동향 관찰

중국의 CSR은 해외 학계에서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주제로서, 각자의 CSR, 기업 시민정신, 지속가능성 등의 논지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CSR을 논의하고 있다. Moon과 Shen은 최근 중국의 CSR을 다루는 논문수가 증가함을 주목하고,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3년 단위로 영문 저널에 수록된 중국의 CSR 관련 논문의 수, 주제 및 논문의 성격(경험적 또는 이론적 논문인지)에 대한 통계 및 평가를 실시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7)</sup> 그들의 논문은 중국의 CSR 관련 논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논문의 주제가 이전의 윤리 문제 중심에서 사회, 환경, 이해관계 당사자 문제들로 그 화제가 다양화되었으며, 경험적 논문이 이론적 논문보다 많음을 밝히고 있다.

Moon과 Shen은 이 논문에서 CSR 분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세 가지 변화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CSR이 본래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암묵적으로 승인된 개념(법적, 도덕적 의무)에서 기업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정책으로 CSR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둘째, CSR은 과거에 기업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Moon과 Shen은 기업 외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기업의 CSR 실행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직접 CSR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정부라는 사실을 지목하였다. Moon과 Shen은 중국 CSR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CSR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에 있다고 관찰하면서 중국의 CSR과 CSR 전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계 학자들도 중국 CSR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한 가지로 거론하는 것인데, Moon과 Shen도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Darigan과 Post는 중국정부의 거버넌스 능력 부족이 오히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기업 시민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였다.<sup>18)</sup> 중국 내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17) Moon, Jeremy and Xi Shen, 앞의 논문 참조.

18) Darigan, Kristian H. and James E. Post(2009), "Corporate citizenship in Chin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35, Autumn 2009.

데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 따른 혜택을 기업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공유가치 관점에서 Darigan과 Post는 중국의 기업 시민정신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Ip은 여타 중국계 학자들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Ip은 다른 중국계 학자들이나 소수의 서양 학자들이 유교의 모호한 문구나 자주 인용되는 구절만을 들어 유교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유교는 집단주의 윤리로서 인권 개념이 부재하고 명백한 규범이 아닌 덕(德)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세계화에 따른 인권 및 법치라는 보편개념이 공유되고 있는 21세기에는 중국의 기업윤리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sup>19)</sup> 이와 함께 Strudler는 유교와 노동권의 관계를 고찰한 이론적 논문에서, 권리개념이 부재하며 덕과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유교적 인간관계를 직업으로 인하여 맺는 인간관계와 구분한 뒤, 후자에는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교문화권에서도 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sup>20)</sup>

Welford는 두 편의 논문에서 CSR의 정의를 내리는 대신, CSR 관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20가지 항목을 제시한 뒤,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기업들이 이 20개 항목에 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sup>21)</sup> 그의 논문에서 비록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한 조사는 빠져 있으나 대신 홍콩이 포함되어 있고,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및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아시아 내 기업들의 CSR 관행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서구에 비해 저조하지만, 공급 사슬 운영과 관련된 항목(근로기준, 공급자 감독, 윤리강령)은 아시아 기업들이 서구 기업보다 회사 지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항목 관련 CSR 관행은 아시아가 가장 발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중국 본토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Welford의 설문 조사 결과는 가장 많은 공급 사슬

19) Ip, Po Keung(2009), "Is Confucianism good for business ethic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pp.470~476.

20) Strudler, Alan(2008), "Confucian skepticism about workplace rights," *Business Ethics Quarterly* 18(1), Jan. 2008, pp.67~83.

21) Welford, Richard(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rope and Asi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13, Spring 2004; Welford, Richard(200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17, Spring 2005 참조.



이 위치한 중국의 상황과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맺음말

현재까지 발행된 중국 관련 CSR 논문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CSR의 주체, 주제 및 특수성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체 측면에서, 현재까지 중국의 CSR의 많은 논문이 정부의 역할과 공헌을 소개하고 있으나, 기업이나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공헌은 정부의 공헌보다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의 공헌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조화사회, 과학 발전관, 회사법 제5조 개정 등으로, 원칙을 천명하는 법률이나 선언의 제·개정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기업에 구체적인 CSR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미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CSR은 유럽 CSR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 경제 침체 및 실업률 증가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거버넌스 역할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가시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명시적 CSR이 증대되고 있음을 Matten과 Moon이 논한 바 있는데,<sup>22)</sup> 중국의 날로 증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도 명시적 CSR을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중국 공산당도 사회 문제 해결을 CSR이라는 기치하에 사적 영역으로 위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로 중국정부는 CSR을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삼아 2008년 쓰촨 대지진 발생 당시, 언론 매체를 통하여 반(反)다국적기업 정서를 자극하여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성금을 기부하도록 압박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CSR이 어떤 의미로 중국 사회에 정착하게 될 것인지는 향후 관찰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CSR을 간주할 경우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사회 문제 해

22) Matten, Dirk and Jeremy Moon(2008), "'Implicit' and 'Expl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SR in Europ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 참조.

결의 주요 수단으로 중국공산당이 CSR을 제시할 경우, CSR이 대두되었던 1960, 70년대에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CSR에 대한 비판이 현재 중국의 CSR에도 타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사회 문제 해결 동참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CSR을 내세워 이뤄질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해결책이 된다. 그러나 정부가 취약해진 자신의 거버넌스 능력을 보완하지 않고 기업의 손에 사회 문제 해결을 맡길 경우, 이윤극대화를 외면할 수 없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사회 문제 해결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나 법 제정을 통한 강제적 의무 부담을 통하여 거버넌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CSR을 통한 문제 해결책은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재량에 사회의 발전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sup>23)</sup>

둘째, 중국의 CSR 논문들을 주제 측면에서 고찰하면, 중국의 CSR은 주로 환경오염 방지 및 규범 준수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나,<sup>24)</sup> 향후 인권, 노동, 소비자 운동,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 관한 연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주제가 주로 환경 분야에 치우친 것은 중국 내 시민사회의 활동이 정부의 통제로 활발하지 못하고 주로 환경 분야 NGO 들만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므로, 중국 내부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특수성 측면에서는 중국의 CSR의 맥락적 접근이 어느 정도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필요할 것이다.<sup>25)</sup>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일부 학자들은 유교의 현대 사회 적용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자가 관찰한 중국계 학자들은 유교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의 CSR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성 인정에도 한계는 있어야 할 것이다. Lin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가이드라인에서

23) 이장원 · 이민동 · 강영희, 앞의 책, p.4.

24) Kolk, Ans et al., 앞의 논문, p.294; Moon, Jeremy and Xi Shen, 앞의 논문 참조.

25) *The Economist*(2011.6.25). 최근호는 경제성장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적 자신감 표출에 대해 special report 섹션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의 상관 관계를 보편주의 및 예외주의의 양 관점에서 논의한 “Universalists v. exceptionalists; Ideological battles” 참조.

인권 보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중국석유(PetroChina) 및 모기업인 CNPC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SR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변호하였다.<sup>26)</sup> 반면, Ip은 그의 다른 논문에서 CSR을 포괄하는 중국의 21세기 기업 윤리는 보편성이라는 제약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성의 가장 중요한 예로 인권을 들고 있는데, 누구의 견해가 더 타당한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sup>27)</sup>

마지막으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덧붙이면, 중국의 CSR 관련 문헌들은 현재까지 노동권 및 노사문제를 CSR의 개별적 이슈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기업 본점소재국인 서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공급 사슬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sup>28)</sup> 이로 보아 향후 노동 문제도 중국의 CSR의 주요 이슈가 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는 CSR이 노동 문제도 포함할 경우, 노동권의 특수성을 희석시키고 인권 문제로 일반화시켜 노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sup>29)</sup> **KLI**

26) Lin, Li-Wen, 앞의 논문, p.74.

27) Ip, Po Keung(2009), "The Challenge of developing a business ethic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참조.

28) Kolk, Ans et al., 앞의 논문, p.295.

29) 이장원 외, 앞의 책, pp.9~10.

---

---

## 참고문헌

---

---

- Anderlini, J. and G. Dyer(2007), “Wary welcome for China’s labour reform,” *Financial Times*, July 2, 2007.
- Carroll, Archie B. (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Society* 38, pp.268~295.
- Darigan, Kristian H. and James E. Post(2009), “Corporate citizenship in Chin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35, Autumn 2009, pp.39~53.
- Economist(June 18, 2011), “Banyan: Nothing new under heaven,” *The Economist*, Jun. 18, 2011.
- \_\_\_\_\_(June 25, 2011), “Special Report: China,” *The Economist*, Jun. 25, 2011.
- Ip, Po Keung(2009), “The Challenge of developing a business ethic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pp.211~224.
- \_\_\_\_\_(2009), “Is Confucianism good for business ethic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pp.463~476.
- Kolk, Ans, Pan Hong, and Willemijin van Dolen(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A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tailers’ sustainability dimension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9, pp.289~303.
- Lin, Li-Wen(2007),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ndards in the global supply chain: Resistance, reconsideration, and resolution in China,”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5(2), Fall 2007, pp.321~370.
- \_\_\_\_\_(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Window dressing or structural change?,”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1), pp.64~100.
- Matten, Dirk and Jeremy Moon(2008), “‘Implicit’ and ‘Explicit’ CSR: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SR in Europ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2), pp.404~424.
- Moon, Jeremy and Xi Shen(2010), “CSR in China research: Salience, focus and nature,” *Journal of Business Ethics* 94, pp.613~629.

- Phoon–Lee, Christine(2006),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utting people first’ from a Chinese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22, Summer 2006, pp.23~25.
- Strudler, Alan(2008), “Confucian skepticism about workplace rights,” *Business Ethics Quarterly* 18(1), Jan. 2008, pp.67~83.
- Wang, Lei and Heikki Juslin(2009), “The Impact of Chinese cul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harmon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Ethics* 88, pp.433~451.
- Welford, Richard(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rope and Asi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13, Spring 2004, pp.31~47.
- \_\_\_\_\_(200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Journal of Corporate Citizenship* 17, Spring 2005, pp.33~52.
- Wong, Loong(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China: Between the market and the search for a sustainable growth development,” *Asian Business and Management* 8(2), pp.129~148.
- Xu, Shangkun and Rudai Yang(2010),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 paradigm,” *Journal of Business Ethics* 93, pp.321~333.